

paul@sneresearch.com

E2E 자율주행과 초급속 충전에 조준

베이징 모터쇼 2026

E2E 자율주행: L4 상용화를 가속

HUAWEI	E2E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한 '첸쿤(乾崑) ADS 5.0' 발표, 양산 차량의 자율주행 레벨 4(L4) 구현을 상정
BYD	저비용 E2E를 개발해 자율주행의 보급 확대를 추진
GEELY	E2E 기술을 탑재한 자율주행 택시(로보택시) 공개

E2E(End-to-End)란?

- 카메라 등 센서의 '원시 데이터'부터 스티어링 · 가속 동의 최종 '운전 조작'까지를 단일 거대 신경망(뉴럴 네트워코)으로 일괄 처리하는 기술
- 기존의 룰 기반 방식보다 도로 조건 변화에 유연하고, 고정밀 지도(HD맵)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특징

기존 방식 (룰 기반)	인식 (AI 적용)	판단 (규칙 기반)	제어 (규칙 기반)

E2E 방식 (단일 신경망) → 원시 데이터 → 운전 조작 (단일 거대 신경망으로 일괄 처리)

HUAWEI ADS, 중국 자율주행의 선두

-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LiDAR(라이다), 밀리미터파 레이더, 카메라 등 다양한 센서와 SoC (시스템 온 칩)를 통합한 솔루션을 다수의 완성차 업체에 공급
- 이전 세대 'ADS 4.0'은 고속도로의 체한된 구간에서 레벨 3(L3)을 실현, 최신 'ADS 5.0'은 그 진화판으로 레벨 4(L4) 구현을 목표



ADS 누적 주행 거리
(2026년 4월 19일 기준)
100억 km+

ADS 작동 시 안전성
(사람 운전 대비)
4.2배

핵심 포인트

- HUAWEI '첸쿤 ADS 5.0': L4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아키텍처
- ADS 5.0 탑재 예정: 동풍자동차와 공동 브랜드 '기경(Epicland)' 최고급 SUV 'X9', 광저우자동차와 공동 브랜드 '계경(Aistaland)' 'GT7' 등
- 중국의 E2E 기술 고도화가 가속되며, '자율주행 강국'으로 부상

SNE Research Special Insight

BYD와 Geely, E2E 자율주행으로 경쟁 가속

베이징 모터쇼 2026



BYD, E2E를 단일 모델로 전환



BYD 소형 해치백 EV '해구(Seagull)'
기존에 없던 LiDAR를 지붕에 탑재

- 최신 자율주행 알고리즘 **'BAS 5.0' 발표**
- 기존 분리형(인식·판단) + 룰 베이스 방식에서 단일 E2E형 AI 모델로 전환
- 저비용화를 통해 'E2E 기술의 대중화' 추진
- 소형 해치백 '해구(Seagull)' 및 소형 SUV '전 PLUS(유안플러스)'에 탑재
- 일부 등급은 1만2천 위안(약 28만 엔)에 LiDAR와 고성능 SoC 추가 가능
- E2E 기반의 일반도로 고도 운전 지원 '시가지 NOA' 구현

BAS 기술 진화

기존 방식
(분리형 + 룰 베이스)
인식 (AI) → 판단 (AI) → 조작 (룰 베이스)

→ **BAS 5.0** (단일 E2E 모델)

합리적 가격

해구: 6만9,900~8만5,900위안
(약 164만~201만 엔)

전 PLUS: 11만9,900~14만9,900위안
(약 280만~351만 엔)

주요 적용 차종


해구 (Seagull)


전 PLUS (유안플러스)

주요 기능

시가지 NOA
(Navigate on Autopilot)

일반도로에서의 고도 운전 지원

Geely, E2E 기반 로보택시 공개



Geely 로보택시 차량 'Eva Cab'
Geely의 EV 플랫폼(PF) 기반

- 로보택시용 캡리무형 EV 'Eva Cab' 최초 공개
- 2027년 양산 및 같은 해부터 상용 운행 계획
- Geely 계열 천리과기술(千里科技)이 개발한 L4 자율주행 시스템 'G-ASD 4.0' 탑재
- 그룹 산하의 조조출행(曹操出行) 배차 서비스로 운용
- E2E 기술 채용, AI 모델은 100억 km의 주행 데이터로 학습
- NVIDIA 2종 + Qualcomm 1종 등 3개 SoC로 총 3,000 TOPS의 연산 성능 확보
- 고해상도 LiDAR 탑재, 전방 최장 검지 거리 600m

G-ASD 4.0 주요 사양

E2E 기반 자율주행(L4)	학습 데이터	연산 성능	LiDAR
	100억 km	3,000 TOPS (3개 SoC)	전방 최장 검지 600m

상용화 계획

2027년 양산 → 2027년 로보택시 상용 운행 개시

SNE Research Special Insight

EV 초급속 충전

BYD·CATL, '9분·6분'으로 충전 시간 대폭 단축

BYD,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



9분 충전
(10% → 97%)

- 2026년 3월, 2세대 '볼레이드 배터리' 발표
- 10% → 70% : 5분

CATL, 3세대 LFP 배터리 '신싱 전지 III'



6분 충전
(10% → 98%)

- 2026년 4월, 3세대 발표
- 10% → 95% : 1분

한랭지에서도 고속 충전



- -30℃에서도 12분 미만 (20% → 97%) 충전
- 저온에서도 안정적인 고속 충전 실현
- 대형 저온실로 성능 시연

상품화는 BYD가 선행

- 대형 SUV '대당', 신형 세단 '해표 08' 등 10개 차종 이상 탑재 시작
- 신형 전지도 에너지 밀도 5% 향상, 항속거리 1,036km 달성

내구성도 한층 강화

- 급속 충전 반복 후에도 용량 보증 수준 상향
  - 2년/5만km : 85% → 87.5%
    6년/15만km : 75% → 77.5%
    8년/15만km : 70% → 72.5%

CATL도 한랭지 충전 강화

- -30℃에서 20% → 98% 9분 이내 충전
- 내부 저항 저감으로 발열 억제
- 1,000회 초급속 충전 후 90% 이상 용량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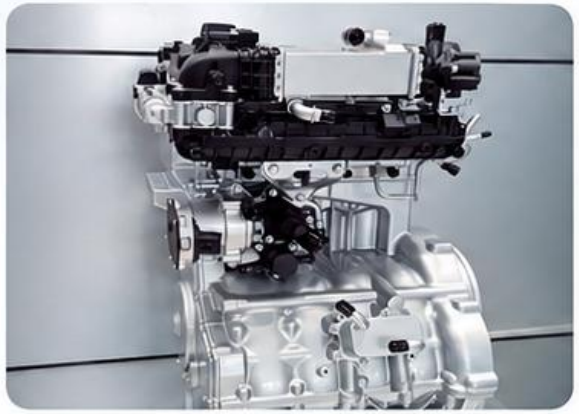
SNE Research Special Insight

HEV용 고효율 엔진 경쟁 가속

Chery·Geely, 최고 열효율 48% 이상 엔진 발표

SNE Research Special Insight

CHERY Chery: '쿤펑 천칭(Kunpeng Tianqing)' 엔진



- 독자적 링크 기구 '하이퍼볼릭 트리플링크(쌍곡 삼연목)' 적용
- 압축비 17.5:1, 팽창비 26:1의 '초아토킨슨 사이클' 구현
- 연료 분사 압력 60MPa, EGR율 35% (일반적 30% 이하)
- 플라즈마 단열 코팅(0.2mm) 및 DLC 코팅으로 마찰 40% 저감

최고 열효율

48.57%

초아토킨슨 사이클

흡기·압축 (짧은 스트로크) » 연소(팽창)·배기 (긴 스트로크)

동일 [illegible] 운동 에너지 [illegible]% 더 회수

GEELY Geely: 차세대 HEV 기술 'i-HEV'



- 신형 엔진 최고 열효율 48.41% 달성 (양산 엔진 기준 세계 최고 수준)
- 기본은 엔진 발전→모터 구동, 고속 주행 시 엔진 구동력도 사용하는 멀티 모드 방식
- AI 기반 '예풍화 용권' 연소 시스템으로 실린더 내 기류 최적화
- 저점도 오일 동으로 마찰 저감, 초급속 충전 배터리와 결합
- AI가 도로·온도·습도·고도·구배를 실시간 분석해 에너지 배분 최적화(종합 효율 10% 추가 향상)

최고 열효율

48.41%

실주행 연비

2.22 L/100km
(45.0 km/L)

0→30 km/h 가속

1.84초

2026년 내 적용 차종

제호(Emgrand), 성진(Xing Rui) L, 성월(Xingyue) L 등

중국의 HEV 전략 배경

- 일부 지역의 충전 인프라 미비와 수출 확대를 고려해 EV만으로는 한계
- 베이징 모터쇼에서 각사, 스트롱 HEV·PHEV용 고효율 신엔진을 잇따라 공개

핵심 기술 비교

구분	Chery (쿤펑 천칭)	Geely (i-HEV)
최고 열효율	48.57%	48.41%
주요 기술	가변 링크(쌍곡 삼연목) 초아토킨슨 사이클	AI 연소 최적화 (예풍화 용권)
특징	고팽창비·고분사압·고 EGR·저마찰	멀티 모드, AI 에너지 최적화, 저점도 오일, 초급속 충전 배터리

시사점

- 중국 완성차의 HEV 엔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
- AI·신연소 기술·저마찰 기술 등을 융합해 효율과 성능 동시 강화
- HEV 라인업 확대를 통해 내수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

권두언: 스마토 혁신으로 미래를 열다 — 2026 베이징 모터쇼, 글로벌 자동차 산업 권력 지형 재편

亿欧智库

- 2026년(제19회) 베이징 국제자동차전시회는 "신시대, 스마트 미래"를 주제로 개최되며, 글로벌 자동차 산업 변혁의 핵심 창구로 평가됨. 본 연구는 금번 전시회를 기반으로 최신 기술, 보랜드 전략 및 산업 구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스마트 주행, 신에너지, 글로벌 경쟁 동 핵심 방향을 정리함.
- 연구 결과는 기업의 전략 수립, 산업 밸류체인 투자 판단,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적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산업의 가치 지향과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것임.

1 전반적 분석
2026 베이징 모터쇼 종합 리뷰



핵심 대이터 개요

- 전시면적 역대 최고치 경신
- 최초 공개 신차 총 181대
- 콘셉트카 총 71대



주요 공개 차종

- 콘셉트카: 중국 완성차의 글로벌 전략 의지 강화
- 최초 공개: 합작/외국계의 현지화 심화 신차 다수



참가 기업 인사이트

- 중국 완[illegible]차의 시[illegible]경쟁력 본격화
- 합작/외국계의 제품 현지화 가속
- 공급망 생태계의 전면적 고도화

2 핵심 인사이트
2026 자동차 산업 주요 동향



스마트 주행(AIEV)

- 스마트 주행: L3 양산 가속, 앤드투엔드 모델 실차 적용 확대
- 스마트 콕핏: AI 기반 음성[illegible] 멀티모달 상호작[illegible] 고도화
- 스마트 섀시: 전자제어 통합,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진전



신규 모빌리티

- Robotaxi·RoboVan: 도심 실증 확대, 상용화 단계 진입
- 상용차 전동화: 전기화·지능화 기반의 "사용자 맞춤형" 진화



혁신 생태계

-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산화 가속, 자동차 공정·물류 쳐용 확대
- 자동차의 확장: "차량"에서 "모빌리티 생태계"로 진화

3 전망 및 시사점
2026 자동차 산업의 발전 전망



기술 발전 전망

- "중앙컴퓨팅+영역 제어"의 아키텍쳐 확산
- AI Box 동 지능화 부품 보급 가속과 안정성 확보



산업 발전 전망

- 중국 완성차와 공급망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합작/외국계의 현지화 및 중국향 제품 라인업 확대
- AI·스마트 서비스의 신성장 동력 부상



생태계 발전 전망

- 자동차 생태계의 탄소중립 가속, 글로별 및 안전 규제 고도화
- Robotaxi 상용화가 생태계의 비즈니스 모델을 재편, 산업밸류체인의 비용 구조 변화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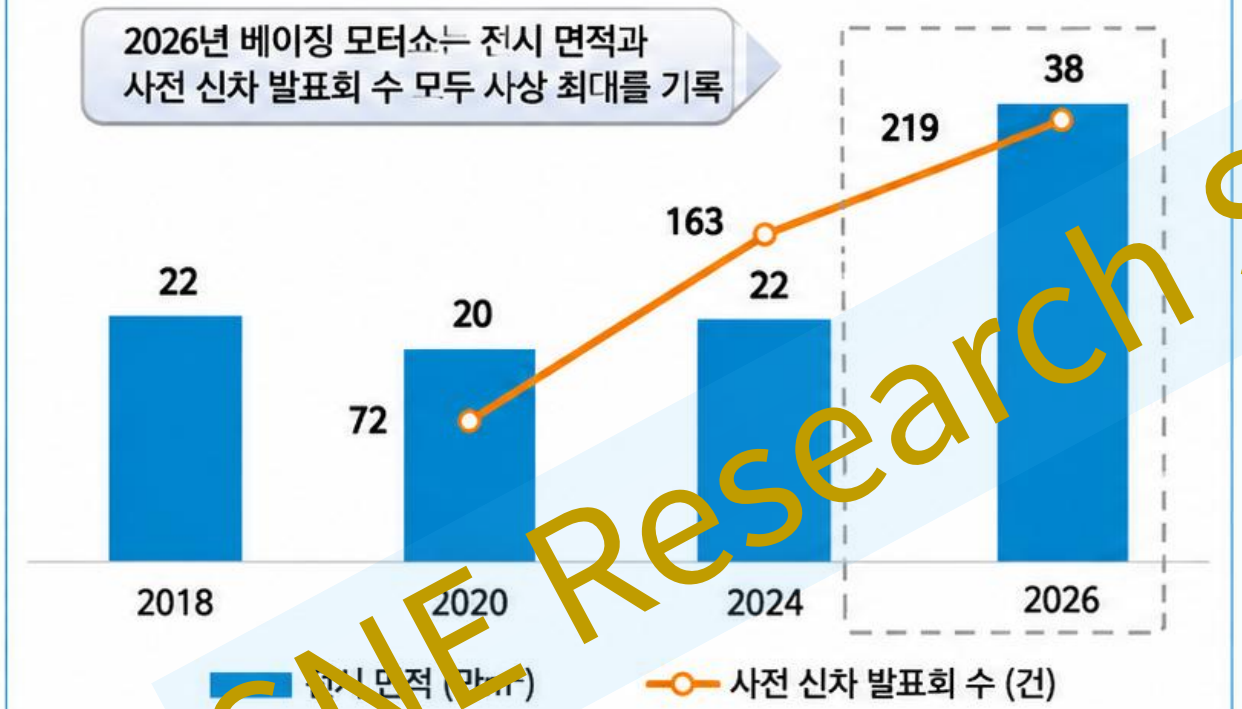
SNE Research Special Insight

자료출처: 亿欧智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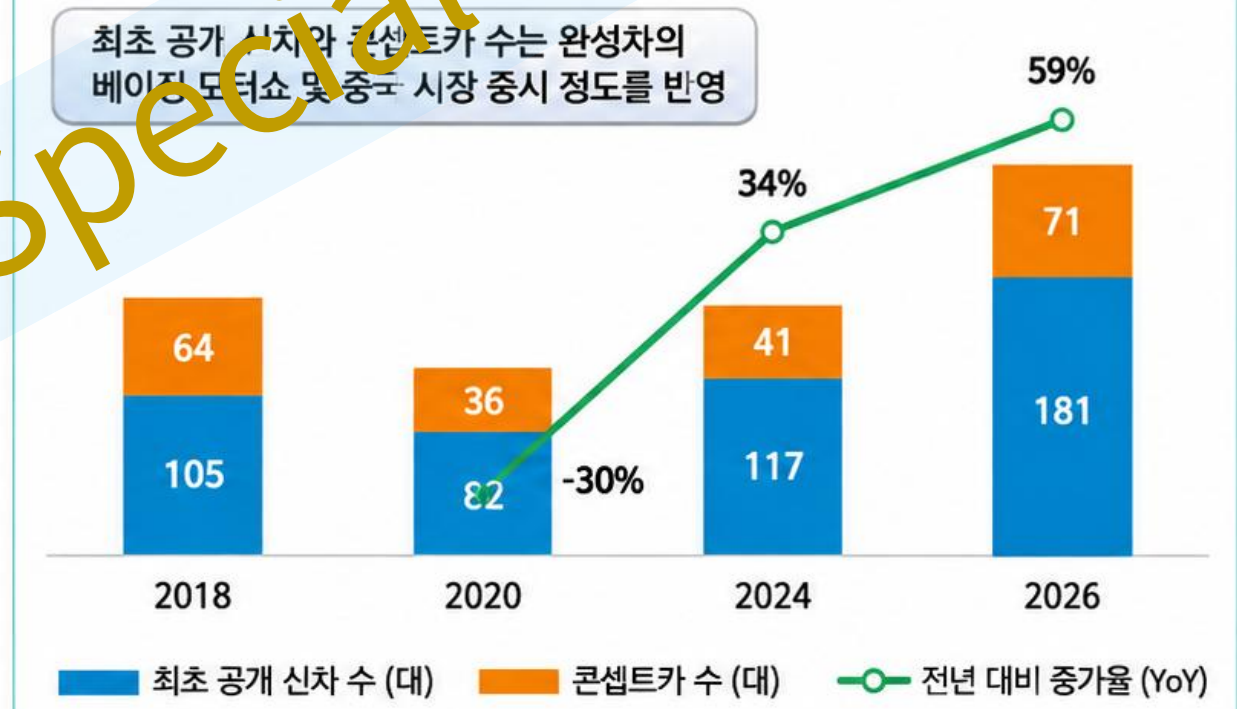
1.1 2026 베이징 모터쇼, 전시 면적 사상 최대…주요 완성차의 전략 무대 부상

- 2026년 베이징 모터쇼의 전시 면적은 사상 최대인 38만m²로 확대되었으며, 글로벌 모터쇼 중에서도 최대 규모를 다시 경신함. 또한 사전 신차 발표회는 전회 대비 크게 증가한 219건으로, 주요 완성차의 베이징 모터쇼와 중국 시장에 대한 높은 전략적 중요도를 입증함.
- 2026년 베이징 모터쇼에서 공개된 신차는 총 181대, 콘셉트카는 71대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각각 최근 3회 대비 높은 수준임. 개념차 증가의 주요 배경은 완성차의 오리지널 디자인 콘셉트카 확대를 통한 미래 자동차의 형태와 디자인 비전 제시로 분석됨. 2026년에도 다수의 완성차가 차세대 모델과 신차를 공개하며, 베이징 모터쇼와 중국 자동차 시장의 핵심 하이라이트로 자리매김함.

亿欧智库: 역대 베이징 모터쇼 전시 면적 및 사전 신차 발표회 수



亿欧智库: 역대 베이징 모터쇼 최초 공개 신차 및 콘셉트카 수



* 2022년 베이징 모터쇼는 1년 연기되어 미개최

** 2018년, 2020년, 2024년은 통계상 최초 공개(월드 프리미어) 기준, 2026년은 잠정 집계 기준

자료출처: 베이징 국제자동차전람회(Auto China) 공식 발표, 亿欧智库

SNE Research Special Insight

차량전시회 개요: “신시대, 스마트 미래” — 2026 (제19회) 베이징 국제자동차전시회

亿欧智库

- “신시대, 스마트 미래”를 주제로 한 2026 (제19회) 베이징 국제자동차전시회(Auto China 2026)가 2026년 4월 24일~5월 3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임. 2026년 베이징 모터쇼는 중국국제전람센터(순의관)와 국가회의센터(베이징관)의 모든 전시관을 동시에 사용하며, 총 전시면적은 38만m²로 역대 최대 규모임.
- 베이징 국제자동차전시회는 1990년 창설 이후 30여 년간 발전해 왔으며, 중국 내외 자동차 산업의 핵심 전시·교류 플랫폼이자 중국 자동차산업을 대표하는 최고 권위의 A급 국제 전시회로 자리잡음.

“신시대, 스마트 미래” — 2026 (제19회) 베이징 국제자동차전시회 (Auto China 2026)



주제: 신시대, 스마트 미래

전시 핵심 가치:

- 자동차산업의 전면적 혁신과 기술 중심 발전 방향 제시
- 자동차산업의 교류·협력 촉진과 자동차 문화 확산
- 산업의 최신 동향, 혁신 이념 및 성과 공유

주최기관: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자동차산업분회
- 중국기계국제협력유한공사
- 중국국제전람센터그룹유한공사
- 중국자동차공정학회

주관기관:

- 야스 전시서비스유한공사

Auto China



전시면적
38만m²
역대 최대 규모



전시 완성차(OEM)
글로벌 및 중국 주요 완성차 기업



부품·공급망
부품, 베터리, 소재 등 공급망 전시



기술기업
인터넷 기업, ICT 기업 등



금융·서비스 기관
자동차 금융, 리스, 은행 등



산업·미디어
국내외 자동차 산업기관 및 언론사

언론의 날
4월 24일~4월 25일

전문 관람의 날
4월 26일~4월 27일

일반 관람의 날
4월 28일~5월 3일

신전략 | 신브랜드 | 신이념
신제품 | 신기술 | 신생태계

SNE Research Special Insight

자료출처: 제19회 베이징 국제자동차전시회 공식 홈페이지, 亿欧智库

1.2.2 2026 베이징 모터쇼, 총 181종 신차 공개로 중국 브랜드의 고급화 공세 가속

亿欧智库

- 2026년 베이징 모터쇼에서는 총 181종의 신차가 공개되었으며, 중국 브랜드의 신차 규모와 라인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중국 완성차 기업들은 스마트화와 티지털화 역량을 신속히 보완하며, 고급화·고성능 중심의 신차를 대거 선보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중국 완성차 기업 주요 신차

BYD



BYD 원(元) PLUS
포지셔닝: 다목적·실용형 순수전기 SUV



BYD 하이리(海狮) 08
해양 시리즈의 신형 플래그십 SUV



BYD 탐(唐)
왕조 시리즈의 신형 플래그십 SUV



BYD 덩스(腾势) Z 왜계판
고성능 지능형 순수전기 스포츠카

팡청바오(方程豹) 베오파드(豹) 시리즈
팡청바오의 신형 라인업



AITO



아이토(问界) X9
화웨이 협업의 프리미엄 플래그십 SUV



아이토(问界) GT7
신규 브랜드의 고성능 플래그십 쿠페

아이토(问界) M9



아이토(问界) M6



吉利汽车 GEELY AUTO



링커(领克) 10
중대형 고성능 순수전기 세단



지커(极氮) 009
플래그십 순수전기 MPV



지커(极氮) 8X
고성능 플래그십 SUV

중국창앞자동차 CHANGAN

창안(CS) 75 PLUS
블루웨일(蓝鲸) 초고성능 버전





선란(深蓝) L06





니오(蔚来) ES9
기술 플래그십 대형 SUV



러다오(乐道) L80
신형 중대형 순수전기 SUV



샤오펑(小鹏) GX
전장 확장형 프리미엄 SUV



리청(理想) L9 Livis
플래그십 SUV의 대형 개량형



위지(YU7) GT
고성능 스포츠 SUV

자료출처: 亿欧智库

SNE Research Special Insight

1.2.2 합작/외국계 기업의 현지화 모델 출시 가속화로 중국 기업의 단기 경쟁 압력 증가

亿欧智库

- 2026년 베이징 모터쇼에서 합작/외국계 기업은 다수의 현지화 순수전기차(BEV) 모델을 공개했으며, 신규 전기차 플랫폼을 적국 활용하고 있음. 예를 들어, BMW는 iX3 장축형과 i3 장축형을, 메르세데스-벤츠는 장축형 순수전기 SUV GLC L을 출시했고, 폭스바겐은 ID. ERA 9X, ID. AURA T6, 그리고 세단 ID. 07을 선보였음.
- **亿欧자동차연구원**은 단기적으로 합작/외국계 기업의 심도 있는 중국 현지화 제품이 중국 자국 브랜드에 **판매 측면에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함.

중국 자율주행차



지커(Zeekr) 9X 지능형 버전
플래그십 대형 SUV



환칙(传祺) E8 PHEV
차세대 에너저 아키택처 기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MPV



우링(五菱) 스타라이트(星光) L
6인승 플래그십 SUV



환칙(传祺) 7
전장면 지능형 고급 SUV



홍처(红旗) H9
브랜드 플래그십 세단



홍처(红旗) 1927
하드코어 오프로드 SUV

합작/외국계 완성차



벤츠 장축형 순수전기 GLC L
전동화 전략의 핵심 현지화 모델



신형 마이바흐 S클래스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캐딜략
대형 순수전기 SUV

BMW



iX3 장축형
전용 축거 연장 모델



i3 장축형
전용 축거 연장 모델



i7
플래그십 세단

Audi



AUDI E7X
순수전기 플래그십 SUV



A6L 화웨이 지능주행 버전
화웨이 지능주행 기술 탑재



S5 Avant
고성능 스포츠 왜건

Volkswagen



ID. ERA 9X
브랜드 첫 플래그십 SUV



ID. AURA T6
중형 순수전기 SUV



ID. 07
중형 순수전기 세단

자료출처: 亿欧智库

SNE Research Special Insight

1.3.1 중국 자율주행차의 시스템 경쟁력이 강화되며, 합작/외국계 완성차도 현지화 가속

- 중국 자율주행차 기업의 시스템 경쟁력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음. 자국 내 기술 축적, 공급망의 정교한 제어, 제품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기반으로, 자동차 시장의 가격 경쟁을 주도하며 고급화 시장으로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국산 5nm 차량용 칩은 이미 양산 단계에 진입했으며, 3,000 TOPS급 시대가 본격화되고, 고급형 지능형 운전 칩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음. 동시에, 완성차 기업은 생산 능력의 [illegible]원화 전략을 추진하며, 해외 규제 대응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강화하고 있음.
- 합작/외국계 완성차의 전면적인 현지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다수의 완성차 기업이 2026년부터 현지 플랫폼 기반의 신규 모델을 대규모로 출시할 예정이며, 예를 들어 메르세데스-벤츠의 장축 전기 SUV GLC L과 BMW의 신형 iX3 등이 '중국 톡화형' 모델로 대표적임. 동시에 폭스바겐은 중국에 VCTC를 설립해 지능형 운전과 현지 R&D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업체-현지 협력 방식을 통해 현지화된 지능형 주행 역량을 보[illegible]하고 있음. 주요 방식은 (1) 중국 내 R&D 센터 설립, (2) 중국 현지의 지능형 운전 솔루션 공급업체와의 협력 등임.

중국 자율주행차 vs. 합작/외국계 완성차

가격 경쟁력과 고급화 동시 추진: 신규 보랜드의 평균 진입 가격이 10만 위안 수준에서 점차 고급화로 전환되고 있으며, 공급망의 풍부한 작원과 시스템 엔지니어링 역량을 바방으로 비용 경쟁력을 확보함.

AION BYD 阿维塔

국산 칩의 실질적 성능 도약: 국산 5nm 차량용 칩이 양산에 돌입해 3,000 TOPS 시대를 열었으며, 고급형 지능형 운[illegible] 칩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크게 향[illegible]됨.

理想

차별화된 포지셔닝과 세분화된 시장 공략: 다양한 사용자 니즈에 맞춘 제품 라인업을 통해 '가정용 차량', '지능형 선두주자', '고급화 지향' 등 세분화된 보랜드 포지셔닝을 구축하고, 과도한 내부 경쟁을 일부 완화함.

시스템 경쟁력 강화

중국 자율주행차

합작/외국계 완성차

전면적인 현지화 추진

현지화 모델 '가속화' 및 중국 전기차 플랫폼 확대: 기존 '수입형' 모델에서 벗어나, 중국 시장을 위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국 현지의 사용 환경에 맞는 모델을 출시함.

MB.EVA 전기차 플랫폼 Neue Klasse 전기차 플랫폼 CEA 아키텍처

현지 R&D 역량 강화 및 생산 체계 이원화: 중국 시장을 글로벌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설정하고 R&D 체계와 생산 역량을 현지화하여, '중국 내에서, 중국을 위해'의 전개를 설현함.

VCTC R&D 센터 / 폭스바겐 중국 R&D 센터 / 니요화 LCV 개발 센터

중국 기술기업과의 생태계 협력 확대: 지능형 주행, 스마트 콕핏 등 지능형 차량 핵심 분야에서 중국 기술기업과 대규모 협력을 추진하며, 자사 기술의 현지화와 적용 속도를 높이고 있음.

momenta HUAWEI

SNE Research Special Insight

차료출처: 亿欧智库

1.3.2 산업 가치사슬의 주도권 경쟁이 재편되며, 공급업체의 위상이 전방위로 강화

- 이번 베이징모터쇼에서는 산업 가치사슬의 주도권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변화가 주목받음. 핵심 공급업체들이 처음으로 '산업 주역'의 자격으로 전시회에서 핵심 위치를 차지하며, 완성차 업체와의 '전시회 동반 참가'의 구도가 변화해, 자동차 산업이 '완성차 중심 자동차'에서 '기술 중심 자동차, 생태계 정의 자동차' 시대로 전면 진입했음을 보여줌.
- 선제품 발표 측면에서도, 다수의 핵심 공급업체가 전시회 개막 전후 일주일 내에 제품 및 기술을 집중 발표해 전시회 내용을 사전에 업계에 확산하고, 선제적인 업계 화제 형성을 진행함. 또한, 공급업체들은 AI 기술 도입을 통해 검증과 본격 생산 단계로 빠르게 전환하며, 개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최중적으로 고품질 제품의 양산과 인도를 실현하고 있음.

핵심 포인트/트렌드 분석

1 산업 주도권의 역사적 위상 상승:
주요 핵심 공급업체들이 전시회의 핵심 위치를 차지하며, 이는 지능형 전기차 시대에 부품 및 기술 역량의 가치가 완성차 자체를 넘어섰음을 반영함.

2 제품 발표의 '사전화' 추진:
핵심 기술과 제품의 발표 시점이 '전시회 기간'에서 '전시회 개막 전 일주일'로 앞당겨지고, '기술 데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업계 이슈를 선점하여 '공급업체의 선행 발표, 완성차의 후속 전시'라는 새로운 구도를 형성함.

3 전체 생태계의 '구매·공급' 관계에서 '기술 공동체'로 전환:
완성차 업체와 공급업체 간 협력이 단순한 구매·공급을 넘어, 공동 연구개발, 공동 제품 정의 등 전방위 협력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4 AI + 공급망'의 심층 융합:
AI 기술이 공급망의 연구개발, 생산, 운영관리 등 전 과정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음.

사례

HUAWEI	CATL	BOSCH	地平线 Horizon Robotics
전시 부스 면적 4,400m²	전시 부스 면적 1,500m²	전시 부스 면적 약 800m²	전시 부스 면적 약 600m²

4월 21일
닝더시대, '초급속 충전의 시대' 기술 발표

4월 22일
지평선, '경계 없는 주행, 듀얼 오르비스' 2026년도 제품 기술 발표

4월 23일
- 화웨이, 자동차 지능화 솔루션 발표
- 안파푸(安波福), 중국 전략 진전 발표

➢ 닝더시대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공동으로 배터리를 개발·제조

BAIC · CATL 宁德时代 · SAIC · 长安汽车 CHANGAN · Ford · 吉利汽车 GEELY

上汽通用五菱 SGMW · 福耀集团 FUYAO GROUP

➢ 화웨이의 연구개발팀이 300만 화소 레이저 레이더와 전면 유리의 빛 투과율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

CATL 宁德时代

➢ 심층 학습을 통해 10만 건 이상의 배터리 사례와 600TB 규모의 운행 데이터를 학습하여 배터리의 안전 상태를 정밀하게 예측, 이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경보하고, 수 분 내에 교체용 배터리 지급을 완성

BOSCH

➢ 융합형 센서 이머지 처리와 심층 학습 기술을 결합해 장애물 인식, 의사결정, 제어의 통합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

자료출처: 亿欧智库

SNE Research Special Insight

2.1.1 자율주행: L3 구현이 본격화, 차량용 칩 연산능력 3,000TOPS로 고도화, 단말-클라우드-세계 모델 융합 가속

亿欧智库

- 2026년 베이징모터쇼에서는 국내외 주요 보랜드가 L3급 자율주행의 양산 능력을 본격적으로 공개하였으며, 다수의 양산 준비 차량이 전시되어 고속·도심 주행 보조, 운전대 해제 기능이 고급차의 핵심 차별화 요소로 부상함.
-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자율주행 칩의 연산능력이 천(千)TOPS급으로 빠르게 확대됨. 리샹(Li Auto), 샤오펑(Xpeng), 니오(NIO) 동은 5nm급 스마트 칩을 자체 개발했으며, 많은 기업이 1,000TOPS 이상을 달성함.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지능형 주행 알고리즘이 단말 대형모델과 세계 모델을 결합한 구조로 진화하고 있으며, 산업 경쟁 지표가 "센서 매개변수 수"에서 "총 연산능력"으로 전환되고, 카메라 기반 NOA가 다양한 운행 시나리오로 확대됨.

억오우즈쿠(亿欧智库): 2026년 베이징모터쇼 [자율주행] 트렌드 인사이트

1 L3 양산 원년, 전면적인 적용 확대
- 중국은 L3의 양산 진입 단계로, 2026년 중 다수 완성차가 L3 양산 또는 정식 출시 예정
- 고속/도심 주행 보조, 운전대 해제 기능이 30여 종의 양산 차량에 탑재

2 자체 칩 연산능력의 고도화
- 리샹, 사오펑, 니오 등 주요 보랜드가 5nm급 자율주행 칩을 자체 개발
- 연산능력이 1,000TOPS를 돌파하며, 고성능 자율주행의 기반을 강화

3 센서 고도화, "고정밀·저비용" 방향 전개
- 895라인 라이다 등 고해상도 라이다 제품이 양산 단계로 진입
- 고해상도 카메라는 한 대 차량 기준 15~25개 수준으로 확대

4 단말 대형모델과 세계 모델의 융합 가속
- 지능형 주행 소프트웨어가 전(全) 스택을 아우르는 단말 대형모델(인식-예측-계획-제어)로 진화
- 산업 경쟁 지표가 '센서 매개변수 수'에서 '총 연산능력(모델 규모)'으로 전환

억오우즈쿠(亿欧智库): 2026년 베이징모터쇼에 전시된 L3 및 이상급 자율주행 승용차와 [자율주행] 솔루션 정리

L3 양산 차량	자율주행 솔루션	하드웨어: 칩 및 센서			기술 경로	소프트웨어: 모델 알고리즘	
		자율주행 칩	연산능력	센서 구성(종류및수량)		모델명	핵심 특징
원제(问界) M9 (2026년형)	화웨이 첸쿤(乾坤) ADS 5.0	화웨이 첸쿤 810Pro	512 TOPS	라이다 6개(1개 896라인 포함), 고해상도 카메라 11개, 밀리미터파 레이더 5개	단말-차량-클라우드 세계 모델 융합	WEWA 2.0 세계 모델	고속/도심 L3와 운전대 해제, 사고 책임 주체 명확, 주간·야간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인식 성공률 50% 향상
리샹(理想) L9 Livis	리샹(理想) AD Max L3 버전	자체 개발 마쥬(马赫)100 (5nm)	2,560 TOPS	고해상도 카메라 4개, 12MP 카메라 8개, 밀리미터파 레이더 5개	단말 대형모델 + 자체 세계 모델 협업	리샹 LWM 세계 모델	이중 밀리미터파 레이더, 시공간 추론능력 향상, 특수 도로환경(보호 난간, 야간 고속 등) 인식 강화
샤오펑(XPENG) GX	샤오펑 XNGP 4.0	샤오펑 투링(图灵) (5nm)	3,000 TOPS	듀얼 896라인 라이다, 고해상도 카메라 14개, 밀리미터파 레이더 5개	2세대 VLA 시공간 추론 아키텍처	샤오펑 PWM 세계 모델	시야 확장 동작, 지연시간 <80ms로 무보호 좌회전 성능 90.5%, 복잡한 교통 시나리오 대응력 향상
니오(NIO) ES9	니오 NOP+ L3 버전	자체 개발 선지(神玑) NX9031 (5nm)	1,000+ TOPS	고해상도 카메라 3개, 8MP 카메라 7개, 4D 이미징 레이더, 밀리미터파 레이더 31개	VLM 시각-언어 대형모델 + 생성형 세계 모델	NIO NWM 세계 모델	350° 무음영 인식, 인간 의도 이해, 도심 내 복잡한 우회 및 교통 흐름의 연속 판단 지원
아우디(岚图) 타이산 (Ultra)	화웨이 첸쿤 ADS 4.1	화웨이 첸쿤 810Pro	512 TOPS	라이다 4개(1개 896라인 포함), 고해상도 카메라 12개, 밀리미터파 레이더 5개	클라우드 훈련 + 차량 추론의 세계 모델	화웨이 WEWA 2.0	4중 라이다 매트릭스, 고속/도심 L3 융합, 시공간 추론 기반의 자율 안전주행 능력 강화

SNE Research Special Insight

자료출처: 2026년 베이징모터쇼, 억오우즈쿠(亿欧智库)

2.1.3 지능형 섀시: 전 라인업 양산 원년, 와이어 제어 전환/EMB/전액티브 서스펜션 확산, AI 섀시의 가속화

- 2026년 베이징오토쇼는 지능형 섀시의 개념이 대규모 양산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핵심 특징은 전 라인업 제어, 전액티브화, 도메인 융합 및 원가 하락임.
- 지능형 섀시의 발전 추체는 와이어 제어 전환, EMB(전자기계식 브레이크) 적용 확대, 전액티브 서스펜션의 빠른 보급 및 섀시 통합과 AI 섀시의 본격적인 시장 형성임. 또한 각사는 "자체 풀스택"(리창/니오/비야디)," "화웨이 탑재"(원제/지커)," "기존 럭셔리 브랜드의 현지화"(벤츠/BMW/아우디) 등 세 가지 진영을 형성하며 기술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

지능형 섀시의 핵심 특징

① 와이어 제어 섀시 양산 원년, 전 라인업 확대

- 업계는 2026년을 "와이어 제어 섀시 양산 원년"으로 규정하며, 기존 기계식 섀시에서 전자식 제어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연간 약 50개 차종 양산, 20~30개 차종의 신속 전개가 예상됨.

② 전액티브 서스펜션 보급, 조향·제동의 심층 연계

- 800V 고전압 플랫폼 + 전액티브 서스펜션 (전자식/유압식) 적용이 가속화되고, 단일 제어기의 차량 통합 제어가 100,000대 규모로 확대되어, 독립 제어에서 협조 제어로 전환되고 있음.

③ 도메인 중앙화 + AI 섀시, 소프트웨어의 심층 융합

- 중앙 도메인 컨트롤러(XCU)가 다기능 ECU를 통합하고, 섀시의 지능형 협조 제어를 구현함.
- AI 섀시는 대규모 모델을 통해 주행습관과 도로 데이터를 학습하여, 예측 조절, 조향 감쇠, 제동 조절 등의 능력을 실현하고, 운전 피로를 크게 [illegible]

④ 원가 빠른 하락, 연간 [illegible]개 차종 이상 적용 전망

- 대규모 양산으로 핵심 부품 원가가 40%이상 하락함.
- 전액티브 섀시는 [illegible] 내 연간 20~30개 차종의 주류 시장 적용이 예상됨.

亿欧智库: 2026년 베이징오토쇼 주요 기업의 【지능형 섀시】 솔루션 정리

진영	기업(브랜드)	지능형 섀시 솔루션	핵심 특징	제품 포지셔닝
자체 풀스택 연구개발	理想	전 라인업 지능형 에어 서스펜션 + 4륜 조향	생산형 EMB 단일 부품 수명 10만 km+, 조향 반응 5.[illegible]m	고급 지능형 섀시의 자체 연구개발
	蔚来 NIO	SkyRide 전액티브 서스펜션 + 와이어 제어 전환	[illegible]시 통합 제어 성숙, 차체 흔들림 억제 성능 우수, 다양한 주행 모드의 사용자 맞춤	럭셔리 순수전기 지능형 섀시
	BYD	클라우도 기반 C/A/P 매트릭스 + 후륜 조향	20만 대 규모의 검증, 4륜 독립 제어, 짧은 응답 지연	전 라인업 적용 + 원가 경쟁력
	小鹏	X-VMC 지능형 통합 섀시 + 와이어 제어 + 후륜 조향	지능형 예측 구동, 사전 대응, 6축 전신 협조 제어	지능형 주행 협업 섀시
	零跑汽车	[illegible] 전 라인업 섀시 + 에어 서스펜션 + CDC + 후륜 조향	20만 대 규모의 고급 섀시, 원가 제어 능력 우수	주류 시장의 가성비 대형 섀시
화웨이 생태계	[illegible]	화웨이 지능형 섀시 + 전액티브 서스펜션 + 도로 인지 예측	ADS 지능형 주행과의 통합, 능동적 자체 조절, 주행 안정성 향상	기술 럭셔리 지능형 섀시
	IM 智己汽车	화웨이 럭셔리 섀시 / 링수 디지털 섀시 + 와이어 제어 + EMB + 4륜 조향	20ms급 빠른 응답, 삼중 안전 이중화, 30만 대 규모의 양산 능력	고급 지능형 순수전기 섀시
기존 럭셔리 브랜드의 현지화		AIRMATIC 에어 서스펜션 + 소각도 후륜 조향	럭셔리 섀시 구성, 중국 도로 환경에 최적화	기존 럭셔리 순수전기 적용
	BMW	적응형 M 섀시 + 후륜 조향	운동 성능 기반, 중국 시장의 주행 습관에 동적 최적화	럭셔리 스포츠 주행 지향
	Audi	차체 운동 관리 모듈 + 전액티브 서스펜션	융합형 지능형 섀시 구성, 기계적 품질감성과 지능형 제어 병행	연소차/순수전기 이중 적용

SNE Research Special Insight

자료출처: 2026년 베이징오토쇼, 亿欧智库

2.1.2 스마트 콕핏: AI 기반 원활한 상호작용, 탈(脫)디바이스, 콕핏-주행 융합으로 '기능 중심'에서 '의도 이해'로

亿欧智库

- 2026년 베이징오토쇼에서 스마트 콕핏은 기존의 하드웨어 경쟁에서 벗어나 AI 역량, 크로스 디바이스 협업, 시나리오 기반 서비스의 종합 경쟁으로 전환함. **차량용 대형 모델의 대규모 적용**으로 음성 명령 중심의 상호작용이 **'수동적 응답'**에서 **'의도 이해와 능동형 서비스'**로 업그레이드되어, 상호작용 효율성과 사용자 경험이 크게 향상됨.
- **AI 기반 생태계, 콕핏-주행 융합, 멀티모달 인지, 헤드업 디스플레이(AR-HUD)** 등으로 스마트 콕핏은 단일 상호작용 단말에서 "안전하고 편리하며, 친도감이 있는" 이동 생활 공간으로 발전하며, 자동차 기업의 차별화 경쟁의 핵심이 되고 있음.

억오우즈쿠: 2026년 베이징오토쇼 스마트 콕핏 발전 트렌드 특징

1 AI 기반 원활한 상호작용
차량용 대형 모델 탑재, 전 차원의 자연어 상호작용, 의도 기반 상호작용으로 콕핏 AI 에이전트 실현

2 탈(脫)디바이스 및 융합
콕핏의 하드웨어 경계 약화, 데이터의 상호 연결, 콕핏이 차량 지능의 허브이자 시나리오 서버스의 통합 거점으로 진화

3 멀티모달 인지 고도화
음성, 시각, 레이더 등 다중 센서 융합으로 감정 인식, 사용자 상태 인지, 시나리오 기반의 "능동형 상호작용" 구현

4 헤드업 디스플레이(AR-HUD) 재구성
AR-HUD가 고해상도화되고, 멀티 연동형의 "시각 상호작용 창구"로 진화해 주행 안전성과 몰입감을 향상

5 소프트웨어 정의 콕핏
전체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장면 기반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유연한 기능 확장과 개인화된 사용자 경험을 구현

6 시나리오 서비스 심화
대형 모델과 시나리오 데이터를 기반으로 콕핏 서비스를 다양한 생활 시나리오로 확장하여, "제3의 생활공간"으로 진화

억오우즈쿠: 2026년 베이징오토쇼 일부【스마트 콕핏】솔루션 정리

주체 유형	기업	핵심 솔루션 / AI 모델	주요 작용 시나리오	양산 사례
완성차 체조사	理想	Mind GPT(AI 콕핏) 업그레이드	전 차원의 원활한 상호작용, 시나리오형 서비스, 콕핏-섀시 융합	L9 Livls, MEGA 개량형
	小鹏	Xmart OS 5.0 (AI 차량 비서 차세대 버전)	AI 에이전트 기반의 지능형 콕핏, 의도형 상호작용, AR-HUD 공간 지능 체험	소형평 GX, G9 개량형
	蔚来 NIO	NOMI-GPT 3.0	전 장면의 정밀한 인지, 장기 메모리 기반의 개인 맞춤형, 장면 연동 서비스	니오 ET9, ES9
기술 공급업체	HUAWEI	홍명 콕핏 5.0 + 반디엔(盘古) 대형 모델	원활한 상호작용, 콕핏-주행-스마트가전-설비 전 생태계 상호연동	아이토 M9 Ultra, 즈제 R7 Max
	商汤 绝影	SenseNova 5.0 콕핏 대형 모델	멀티모달 지식 엔진, 엣지 기반 경량화 추론, 콕핏 시나리오의 완전한 생태계	샤오미 SU7 Ultra 등 협력 모델
	火山引擎	화산 엔진 스마트 콕핏 AI 솔루션	엣지-클라우드 협업 기반의 대형 모델 서비스, 멀티모달 상호작용 엔진, 장면형 AI 서비스	협력 완성차의 AI 원생 콕핏 모델
	科大讯飞 iFLYTEK	성화 콕핏 대형 모델 4.0	초자연어 상호작용, 친자녀 시나리오 적응, 콕핏 안전 생태계	싱기위인 ET, 홍처 EHS7 개량형 등
	ThunderSoft 半导体	"칭수 OS 3.0" 콕핏 융합 운영체제	콕핏 데이터 해석, 크로스 디바이스 연동, L3 + 스마트 콕핏 융합	다수의 완성차 콕핏 융합 모델
	芯驰 SemiDrive	즈초 X10 콕핏-주행 융합 칩 솔루션	콕핏과 주행 지능 융합, 다중 화면 연동, AR-HUD, 고성능 콕핏 컴퓨팅	다수의 완성차 플래그십 모델
	BOSCH	신세대 콕핏 융합 플랫폼	융합 컴퓨팅, 내비게이션·차량 정보-AR-HUD의 전 영역 연동, 다중 시나리오의 지능형 서비스	협력 브랜드의 고급 모델
	星河智联	광치(광저우차) 클라우드-콕핏 융합형 대형 모델 콕핏	차량-클라우드의 멀티모달 대형 모델, 콕핏 데이터의 실시간 연동, 경로/주행 상태의 능동적 연동	광처그룹의 다수 고급 차량 모델

SNE Research Special Insight

자료출처: 2026년 베이징오토쇼, 억오우즈쿠

2.1.3 지능형 섀시: 전 라인업 양산 원년, 와이어 제어 전환/EMB/전액티브 서스펜션 확산, AI 섀시의 가속화

亿欧智库

- 2026년 베이징오토쇼는 지능형 섀시의 개념이 대규모 양산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핵심 특징은 전 라인업 제어, 전액티브화, 도메인 융합 및 원가 하락임.
- 지능형 섀시의 발전 추체는 와이어 제어 전환, EMB(전자기계식 브레이크) 적용 확대, 전액티브 서스펜션의 빠른 보급 및 섀시 통합과 AI 섀시의 본격적인 시장 형성임. 또한 각사는 "자체 풀스택"(리창/니오/비야디)," "화웨이 탑재"(원제/지커)," "기존 럭셔리 브랜드의 현지화"(벤츠/BMW/아우디) 등 세 가지 진영을 형성하며 기술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

지능형 섀시의 핵심 특징

① 와이어 제어 섀시 양산 원년, 전 라인업 확대

- 업계는 2026년을 "와이어 제어 섀시 양산 원년"으로 규정하며, 기존 기계식 섀시에서 전자식 제어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연간 약 50개 차종 양산, 20~30개 차종의 신속 전개가 예상됨.

② 전액티브 서스펜션 보급, 조향·제동의 심층 연계

- 800V 고전압 플랫폼 + 전액티브 서스펜션 (전자식/유압식) 적용이 가속화되고, 단일 제어기의 차량 통합 제어가 100,000대 규모로 확대되어, 독립 제어에서 협조 제어로 전환되고 있음.

③ 도메인 중앙화 + AI 섀시, 소프트웨어의 심층 융합

- 중앙 도메인 컨트롤러(XCU)가 다기능 ECU를 통합하고, 섀시의 지능형 협조 제어를 구현함.
- AI 섀시는 대규모 모델을 통해 주행습관과 도로 데이터를 학습하여, 예측 조절, 조향 감쇠, 제동 조절 등의 능력을 실현하고, 운전 피로를 크게 [illegible]

④ 원가 빠른 하락, 연간 [illegible]개 차종 이상 적용 전망

- 대규모 양산으로 핵심 부품 원가가 40%이상 하락함.
- 전액티브 섀시는 [illegible]내 연간 20~30개 차종의 주류 시장 적용이 예상됨.

亿欧智库: 2026년 베이징오토쇼 주요 기업의 【지능형 섀시】 솔루션 정리

진영	기업(브랜드)	지능형 섀시 솔루션	핵심 특징	제품 포지셔닝
자체 풀스택 연구개발	理想	전 라인업 지능형 에어 서스펜션 + 4륜 조향	생산형 EMB 단일 부품 수명 10만 km+, 조향 반응 5.[illegible]m	고급 지능형 섀시의 자체 연구개발
	蔚来 NIO	SkyRide 전액티브 서스펜션 + 와이어 제어 전환	[illegible]시 통합 제어 성숙, 차체 흔들림 억제 성능 우수, 다양한 주행 모드의 사용자 맞춤	럭셔리 순수전기 지능형 섀시
	BYD	클라우도 기반 C/A/P 매트릭스 + 후륜 조향	20만 대 규모의 검증, 4륜 독립 제어, 짧은 응답 지연	전 라인업 적용 + 원가 경쟁력
	小鹏	X-VMC 지능형 통합 섀시 + 와이어 제어 + 후륜 조향	지능형 예측 구동, 사전 대응, 6축 전신 협조 제어	지능형 주행 협업 섀시
	零跑汽车	[illegible]개발 전 라인업 섀시 + 에어 서스펜션 + CDC + 후륜 조향	20만 대 규모의 고급 섀시, 원가 제어 능력 우수	주류 시장의 가성비 대형 섀시
화웨이 생태계		화웨이 지능형 섀시 + 전액티브 서스펜션 + 도로 인지 예측	ADS 지능형 주행과의 통합, 능동적 자체 조절, 주행 안정성 향상	기술 럭셔리 지능형 섀시
	AITO 问界汽车	화웨이 럭셔리 섀시 / 링수 디지털 섀시 + 와이어 제어 + EMB + 4륜 조향	20ms급 빠른 응답, 삼중 안전 이중화, 30만 대 규모의 양산 능력	고급 지능형 순수전기 섀시
기존 럭셔리 브랜드의 현지화		AIRMATIC 에어 서스펜션 + 소각도 후륜 조향	럭셔리 섀시 구성, 중국 도로 환경에 최적화	기존 럭셔리 순수전기 적용
		적응형 M 섀시 + 후륜 조향	운동 성능 기반, 중국 시장의 주행 습관에 동적 최적화	럭셔리 스포츠 주행 지향
	Audi	차체 운동 관리 모듈 + 전액티브 서스펜션	융합형 지능형 섀시 구성, 기계적 품질감성과 지능형 제어 병행	연소차/순수전기 이중 적용

SNE Research Special Insight

자료출처: 2026년 베이징오토쇼, 亿欧智库

2.1.4 동력 배터리: 기술 로드맵 가속화, 초충전/전고체/나트륨이온/대형 원통형 등에서 돌파구

◆ 2026년 베이징오토쇼 이후 동력 배터리 업계는 이미 단일 성능 경쟁에서 벗어나, **초충전 보급, 전고체 양산, 나트륨이온 규모화, 대형 원통형** 고에너지화, 안전·저온·고출력화 등 여러 기술 노선이 동시에 진화하는 새로운 단계에 전입함. 주요 기업들은 고전압 플랫폼 적합성, 극한 환경 성능, 원가 제어 및 양산 호환성을 핵심으로 삼아, 이질적 경쟁을 구축하고 **'단기 초충전 + 중장기 전고체 + 나트륨이온 + 대형 원통형'**의 다층적 기술 포트폴리오를 형성함.

◆ **초충전 기술**은 4C/5C에서 10C~15C로 빠르게 도약해 '충전 10분, 주행거리 1,000km급'을 실현해 겨울철 충전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전고체 배터리는 연내 양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트륨이온 배터리와 대형 원통형 배터리는 각각 승용차와 고급 시장에서 규모화를 가속화하고 있음. 동시에 새로운 국가 표준과 안전 및 저온 성능 업그레이드가 더해져, 업계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아우르는 완성도 높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기술 축적과 양산 거점의 시너지를 통해 효율을 크게 높이고 있음.

트렌드 1: 초충전 보급(5C~15C)

- 주류가 4C/5C에서 10C~15C로 전환, 5~10분 내 80% 충전 가능
- 800V/1,000V 고전압 플랫폼과 적합성 우수, -30°C 저온에서도 정상 충전 가능
- 수명과 충전 열 관리가 핵심 과제로 부상

트렌드 2: 전고체 배터리의 본격 양산 진입

- 연내 일부 기업이 양산 착수: 에너지밀도 300~360Wh/kg
- 승용차 탑재를 중심으로 검증 확대, 26~27년 고속 성장 예상
- 전고체·반고체 병행 로드맵: 전고체 에너지밀도 400~480Wh/kg, 수명 1,000km+, 30년 이후 대규모 적용 전망

트렌드 3: 나트륨이온 배터리의 규모화 가속

- 에너지밀도 160~175Wh/kg, -40°C 방전 유지율 ≥85%
- 원가가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10~15% 낮음
- 2026년 연간 생산능력 40GWh 규모로 확대, ESS·승용차 등 수요 증가로 대규모 응용 가속

트렌드 4: 안전·저온 성능의 전면적인 고도화

- 신국가표준(2026년 7월 시행)에 따라 열확산, 단락, 저온 안전성 평가 요구 강화
- 전계면 안정성 선제 구축: -20°C/-30°C 용량 유지율 >80%
- 나트륨이온 및 전고체의 저온 성능이 빠르게 개선

트렌드 5: 대형 원통형의 고에너지·고속충전 진화

- 4680/4695/46120 규격이 중심, CTP/CTC 탑재로 시스템 에너지밀도 220~260Wh/kg
- 800V 플랫폼과 적합
- 승용차, ESS, 신규 고성능 차량 플랫폼으로 적용 확대

CATL 宁德时代 — 전 주기 확장 추진

초충전/응집(응고)/나트륨이온 전면 전개

- **3세대 초충전 배터리:** 10C / 피크 15C, 6분 충전, 30°C에서 9분 내 20%→98%, 1,000V 플랫폼과 적합
- **3세대 응집(응고) 배터리:** 280Wh/kg, 1,000km 주행, CTP 3.0, 양산 25%
- **나트륨이온 배터리(3세대):** 350Wh/kg, 1,500km 주행, 항공 등 고급 시장 적용
- **나트륨이온 배터리(3세대):** 175Wh/kg, -40°C 사용 가능, 2026년 양산, 주행거리 400km+
- **구동증강(주행거리 연장) 배터리:** 순수 전기주행 600km, 하이브리드 차량에 적합

EVE 亿纬锂能 — 대형 원통형 고에너지화 + 다양한 응용 확대

- **46계열 대형 원통형(4695/46120):** 260Wh/kg, 승용차 +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등 전방위 적용, 수명 900km+
- **방안: 에너지저장/고속충전 충전:** BJ40 증량, 스탠다드 S3, 영령 A10 등과 매칭

BYD × 弗迪动力 FinDreams Power — 블레이드 배터리 업그레이드 + 전고체 돌파, 안전과 저온 이중 강화

-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플래시 충전):** 5분 충전 90%, 9분 충전 완료, -30°C에서도 정상 작동, 계획대로 연내 출시
- **전 주기 1,000V 플랫폼:** 고전압 블레이드 배터리, 500kW+ 충전 출력, 시스템 효율 +10%
- **황화물 전고체 배터리:** 480Wh/kg, 1,000km+ 주행, 5C 초충전 지원, 차량 테스트 완료

SEVB 欣旺达动力 — 대형 원통형 충전 고도화 + 나트륨이온 + 전고체, 상용화 가속

- **欣望(신왕다) 대형 원통형 (46계열):** 15C 플래시 충전, 9분 내 95% 충전, 충전 안전성 우수, 연내 양산
- **저온 고속충전 배터리:** -40°C에서 15C 방전, 2026년 바닥 탑재 모델 양산
- **반고체 배터리:** 320Wh/kg, 3C 고속충전, 2027년 소규모 양산 및 차량 탑재

SNE Research Special Insight

자료출처: CATL, BYD(비야디), EVE(이브에너지), SEVB(신왕다), AVIC(중항신항), 亿欧智库

2.2.1 기존 상용차 그룹의 신규 브랜드로 지능형 운송 경쟁 주도, 제품 포트폴리오 보완으로 전략적 입지 강화

亿欧智库

- 2026년 베이징오토쇼에서 상용차 신제품 발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상용차 그룹이 신규 브랜드를 통해 지능형 운송 사업을 독립적으로 전개하고, 전용 플랫폼과 전용 시나리오 기반의 제품 로드맵을 구축해 시스템 경쟁력을 재편함으로써 향후 지능형 운송 시장에서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임.
- 신규 브랜드는 첨단 차종 개발과 전용 플랫폼, 시나리오 기반 운영 계획, 생태계 협력 네트워크의 결합 역량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음.
  자율주행 기업들은 운송 플랫폼을 통해 기존 OEM의 역량을 보완함. 그 중, 카고봇(KargoBot), 샤요마즈싱(小马智行), 창안카이청청(长安凯程)은 이미 규모화된 운영과 대량 인도 단계에 진입했으며, 광자동(广汽) 계열의 AITRUK/MONTX도 실제 차량을 공개해 플랫폼 계획과 콘셉트 모델을 중심으로 시장에 선보였음.

시장 시나리오 분류	브랜드	본 전시회 주요 발표 내용	생태계 협력
무인 화물 트럭 (RoboTruck)	카고봇 (KargoBot)	KargoBot Inside 전략 발표; 범용 하드웨어 플랫폼 'KargoPlatform Gen5.0' 출시; 양산형 'KargoBot Space 2.0' 기반 자율주행 트럭 공개	산시자동차/베이자동차 동고 무인 화물차/금속·광산 운송/중국국제자동차공업 협동조합(CAAM) 동력 공동 연구개발; 닝더시대(CATL)와 배터리 교환 솔루션 표준화; 바오넝(宝能)과 레이저 레이더 탑재 및 원격 제어 기술 적용
	샤오마즈싱 (Pony.ai)	제4세대 무인 화물차 'RoboVan' 출시; 제4세대 자율주행 트럭 생산 개시; '전척·성배(千线·城配)' 전 시나리오 물류 네트워크 구축	닝더시대(배터리 공급), 중외운(中外运, 간선+지역배송 협력); 허리에(禾赛, AT 시리즈 LiDAR 적용), Robotaxi 모델(송용차) 연간 4,000대 양산
	탁위테크 (Zhuoyu Tech)	첫 양산형 무인 화물차 모델 발표; '위웨(宇跃) 7세대'/'위추(宇驰) 6세대' 출시; 백만 대 급 플랫폼 로드맵 제시(2026년 양산 예정), 창위자동차(长宇汽车)와의 연합 체제 (2026년 9월 양산)	이치제팡(一汽解放, 7세대/6세대 NOA 공동 개발); 위통버스(宇通客车, 송용차 NOA 공동 개발)와 협력, 중국 내 대규모 시범 운영
무인 밴 (RoboVAN)	창안카이청청 (长安凯程)	RoboVan 글로벌 전략 발표; 출시 예정 모델의 기술 사양과 응용 시계, 운송 생태계 3대 강화 계획 발표	징동물류(京东物流)와 심층 협력, 전 시나리오 확대 및 대량 인도 추진
	유투이노베이션 (佑驾创新)	국내 최초 '무병(无病)' L4급 무인 밴 '샤오주카이(小竹5 Pro)' 출시; 'Pilot 4' 시리즈 전 라인업의 지능형 물류 솔루션 공개; RoboVanDaaS 플랫폼 생태계 구축	롱탱(荣腾, 지능형 전략 협력, 무인차+로봇+물류 통합 솔루션); 볼타(禾赛, 라이다 공급); 서비스 안정성 제고
	상하이 다통 (上海大通)	대형 슈퍼 지능형 상용차 '정정(正拿)' '거리왕(智驾王)' 정식 출시(12.68만 위안); 글로벌 고객을 위한 생태계 생태계 공동 구축 추진; RoboVan L4 시범 서비스 본격 가동	닝더시대(天行 상용차 배터리);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 생태계 연합 공동 추진); 글로벌 멀티시나리오에 적용 가능한 제품 기술 동시 개 발
무인 버스 (RoboBUS)	광자동(广汽) – AITRUK	광자동(广汽) 상용차 브랜드 'AITRUK' 발표; '자율주행 133계획' 제시 (원산 4/3개 RoboBUS 계열); RoboBUS 8.5 계열의 4가지 운용 모델 최초 공개	카고봇(KargoBot)과 'KargoBot Inside' 기반 OEM 협력 및 4종 시범차 공동 연구개발
	광자동(广汽) – MONTX	경형 상용차 브랜드 'MONTX' 신규 런칭 및 브랜드 로고 공개; MONTX P10, MONTX V10 두 가지 전략 모델 발표	–
로보택시 (Robotaxi)	지리자동차 – 에바캡 (Geely – Eva Cab)	지리자동차가 L4급 Robotaxi의 원형 모델 '에바캡(Eva Cab)' 발표; 내장된 지능형 융합 플랫폼 '에바(Eva")의 전체 능력 및 2.0 기술 아키텍쳐 공개	차오차오출행(曹操出行, 운영 파트너, 2027년 맞춤형 양산); 제페이테크(阶跃星辰)/천리테크(千里科技, 초대형 Eva 모델 공동 연구개발); 슈페첩(SuperChip) 컴퓨팅 파워 지원
	원라이드 (文远知行, WeRide)	무인 소형 버스 '원라이드+'와 Robotaxi 제품군 공개; 전 세계 지능형 운송 성과 소개	허싸이테크(禾赛科技, 핵심 전략 협력사, 전 시나리오 라이다 솔루션 제공)

SNE Research Special Insight

자료출처: 2026 베이징오토쇼, 亿欧智库